



음식과 수행

태국의 인삼, 파비플로라

시르투인 활성제로 알려진 레스베라트롤보다 4~5배 효과

‘파비플로라’라고 혹시 들어보았는가? 태국의 인삼으로 불리는 파비플로라가 체지방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화제다. 파비플로라는 흑생강의 일종으로,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다. 파비플로라는 고산 지대의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자기방어 물질로 여러 영양소를 생성하면서 141가지의 다양한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태국 왕실에서는 건강관리를 위해 활용될 정도로 오랜 기간 활력 보강 및 자양강장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이미 해외 시장에는 캡슐, 농축액 및 분말 등으로 여러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강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체지방 감소

파비플로라의 핵심 효능 중 하나는 ‘시르투인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시르투인은 체내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어, 다이어트 보조제로 주목받고 있다.

둘째, 노화방지

피부 노화를 가속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세포 노화인데 그중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를 개선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세포 노화 및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를 억제함으로써 피부 노화 과정을 지연시킨다고 한다.

셋째, 혈액순환 개선



동의보감에 ‘추위를 몰아내고 맥을 통하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파비플로라에

함유된 아르기닌 성분도 혈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혈당 억제 및 지질 대사 개선

파비플로라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음식물의 당류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 즉, 흑생강의 메톡시 플라본이 탄수화물과 지질대사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에너지 소비를 활발하게 한다고 한다.

태국에서는 ‘5대 허브’라고 불리고 있으며 소수 민족 사이에서 긴 세월 동안

사용되어 왔다. 주로 근육통이나 피로 회복에 좋은 약제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생강이나 강황과 마찬가지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는 파비플로라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 감소와 관련된 기능도 기대할 수 있어 체중을 감량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고해 볼 수 있는 식품이다.*

이승우 기자

제1편 내용 요약

- 전도관의 박태선님과 승리제단의 조희성님
- 박태선님과 조희성님의 상관관계
- 엄마, 영모님
- 박태선 영모님과 조희성 구세주님
- 금목합운(金木合運)하여 지상선국(地上仙國)창건이라

... 연재를 시작하며

박태선 장로와 그분이 이끈 전도관 역사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매우 잘못되어 있다. 그분을 따랐던 대부분의 신자들도 그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분은 왜 전도관을 세웠으며, 잘 나가던 전도관을 왜 돌연 해산하였으며, 자신을 믿고 따르던 교인들을 왜 내쫓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분명 있다.

박태선 장로는 성경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 병자들은 병이 치유되는 신유(神癒)의 은혜가 일어나며, 봉사가 눈을 뜨고, 병어리가 말을 하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꼬추의 허리가 펴지는 불가사의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이러한 소문에 전국의 기독교인들은 앞 다투어 박 장로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에 위기를 느낀 기독교계는 박 장로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었다.

그러자 박 장로는 전도관(傳道館)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을 모아 신양공동체를 세웠다. 소사 신앙촌을 필두로 덕소 신앙촌, 기장 신앙촌을 차례로 건설하는 등 잘 운영하여 나가던 중 1980년에 이르러 박 장로는 돌연 전도관을 해산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다. 잘 나가던 사업을 고의로 부도를 내고, 열렬한 신도들을 갖은 누명을 씌워 내쫓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을 천상천하의 유일한 상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나, 전도관 조직을 가지고 5만 년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을 마귀 욕에서 구출하여 모처(某處)에 모셔놓았다는 등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계속 쏟아냈다. 그 후 몇 년 간 박 장로가 행한 언행은 그를 믿고 따랐던 150만 명의 전도관 교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암호였다.

필자(“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편저자 김상욱)도 19세부터 박 장로를 하늘의 사람이라고 믿고 따라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박 장로의 마지막 행적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그러다 승리제단에 입교하여 조희성 선생의 말씀을 듣게 되자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리게 되었다. 사비비 이단오로만 잘못 알려진 박태선 장로와 전도관이 왜곡되어 있지만, 본 연재물을 통해 본래의 모습으로 자세히 드러내 밝혀줄 것이다.

편저자 주

들어가는 말

박태선 장로님의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키시는 역사였다. 박태선 하나님의 사명은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 완성되시는 승리하신 구세주 하나님을 출현시키시는 것이었다.(묵 3:21) 이와같이 출현하는 분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세주를 출현시키시는 데 아주 비밀한 공식(公式)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공식은 누구도 알 수 없게 감추어진 천기(天機)인 것이다. 그래서 불경에 보면 비밀장(秘密藏)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이 비밀장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자삼점(伊字三點)이라는 비밀(秘密)이다.(대반열반경 제2권) 이 비밀장의 내용인 이자삼점(·)은 생미륵불을 출현시키시는 엄격히 감추어놓은 비밀한 공식이다.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三位一體)라는 소리를 지주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삼 사만 사천)’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노상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십 사만 사천’이라고 성경에 써 있지한 성경의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던 것이다. 십

사만 사천의 의인의 숫자라니까 **金木合運東西로서 地上天國 創建이라 금목합운동서 지상천국 창건** **先出其人後降主로 無事彈琴千年歲라 선출기인 후강주 무사탄금천년세**

님이요, 사만(四萬)은 해와 이긴 자요, 사천(四千)은 아담 이긴자이다. 십 사만 사천이 이루어지면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상천국이 에덴동산이요, 하늘나라이므로 태초의 에덴동산에 144,000명의 의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에덴동산이 회복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복되던 되는 것이다. 십 사만 사천의 대명사가 바로 에덴동산이요, 믿음이요, 영생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이요, 또한 부활인 것이다.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일체로 완성이 되시면 그분이 바로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묵 3:21)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비밀하게 천기로 감추어 놓으신 구세주 하나님을 출현시키시는 공식이었다.

그리고 남사고(南史古) 선생의 비결서 격암유록(格菴遺錄) 은비기(隱秘歌)에 보면 삼성일체일인홀(三聖一體一人出)이라는 비결을 적어놓고 있는데 이 내용도 바로 우리 한민족이 기다리는 정도령(正道令)을 출현시키는 엄격히 감추어 놓은 비밀의 공식인 것이다. 이와같은 하늘이 천기로 가려놓은 비밀장 속의 구세주를 출현시키시는 공식을 본서를 통하여 낱낱이 밝혀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공식에 대입(代入)시켜서 맞지 않는 것은 다 가짜 구세진인(敎世眞人)이 되는 것이다.

격암유록 송가전에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적어놓고 있

다. “동서각국제외(東西各國除外)하고 예의동방근화국(禮義東方權花國)에 남지조선선정(南之朝鮮先定)하여 박활(朴活)에게 전위(傳位)하사” 해석하면 “동서양의 여러 나라를 다 제쳐놓고 동방예의지국인 무궁화꽃이 피는 나라인 조선나라 중에서 남조선을 선정하여 박태선님에게 세계를 살리는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뜻이다.

또 도부신인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수도선출용천박(修道先出容天朴)을 세인부지(世人不知) 모르거든 천봉지탁소사립(天崩地拆素砂立)을 십승인(十勝人)게 문의(問議)하소.” 해석하면 “수도하여 하나님의 일굴 모습으로 먼저 나온 박태선님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거든 무너진 하늘나라를 소사에서 다시 회복하여 세우신다는 본인 십승인에게 물어보시오”라는 내용이다. 소사땅을 중심으로 하늘나라 회복의 역사를 하시는 분을 찾으라는 내용이다.

어찌됐건 박태선님이 40년간 영적인 광야생활을 하시면서 위에 소개한 것과 같은 천기에 속한 구세진인 출현의 공식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서 구세주를 성공리에 출현시키시는 경이로운 모습을 접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와같은 내용은 천기에 가

려진 극비의 사항이기 때문에 박태선님을 따르던 150만 교인들 중 어느 누구도 엄정한 천기의 역사를 감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전도관 교인들은 박태선님이 유일한 승리자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혼자서 모든 일을 끝마무리 지으실 줄 알았다. 그래서 전도관 교인들은 박태선님이 사명을 다 마치시고 세상을 떠나시니까 박태선님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하고 낙심을 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회의를 느끼면서 종교는 사기라고 매도를 하며 신앙을 떠나 무신론자가 되었다.

사실 박태선님은 하실 말씀을 다했으나 육에 속한 전도관 교인들이 귀가 있으나 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 박태선님이 전도관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늘이 감춘 비밀한 공식 속에 출현하실 구세주를 증거하신 것인데 다들 이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속에 죄의 뿌리까지 빼주는 이긴자가 나왔으니 그를 통하여 하라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여 그 모든 죄의 뿌리까지 뽑아서 그 아름다운 세계에 가는 인간만이 최고의 복된 자가 될 것이다.” (81. 12. 2 신앙신보)

이 말씀의 참뜻을 아시는가? 박태선님이 아닌 다른 이긴자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기다리는 구세주가 출현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하단에 계속)

전도관의 박태선님



1917년 음력 11월 13일 평안남도 덕천군 덕천읍 남리 148번지에서 출생 - 정사생(丁巳生)

박태선님은 전도관을 창설하고 세 개의 신앙촌을 세우며 대한민국을 발각 뒤집어 놓은, 세상말로 하면 대 종교 운동을 펼친 분이다. 그 분은 일개 종교운동을 위한 부흥강사의 사명을 받은 분이 아니다. 그 분은 감람나무요(계11장, 속4장), 동방의인이요(사41장), 승리자(계2장, 계3장)이다. 격암유록에는 박태선님의 합자와 그 분이 이룩한 전도관 및 신앙촌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 이를 보아도 이 분은 보통 평범한 분이 아닌 하늘의 중요한 사명을 받아 이루기 위해 출현한 중요한 분임을 알 수가 있다.

가. 박태선님의 합자(衙字)

十八術誕生하니 三聖水源 三人之水
십팔술탄생 삼성수원 삼인지수
羊一口의 又八일세 (桃符神人)
양일구 우팔 도부신인
十八(십팔복)의 글을 합하면 朴(태)자가 되고 三人之水(삼인지수)의 글을 합하면 泰(태)자가 되고 羊一口(양일구)에 八(팔)자를 더하면 善(선)자가 된다.

木運(목운) 先出其人(선출기인) 朴泰善(박태선)님

나. 전도관(傳道館)

人惠無心村十八退 丁目雙角三卜之人
인혜무심촌십팔퇴 정목쌍각삼복지인
千口人間以着冠也 (道下止)
천구인간이착관야 도하지

人惠無心村十八退 → 傳(전)
인혜무심촌십팔퇴
사람 인(人) 변과 은혜 혜(惠)에서 마음 심(心)을 없애라고 했다. 그렇게 하니(惠)가 되고 마을 촌(村)자에서 십팔(十八)을 퇴(退)해 버리라고 했으니 오른쪽에 마디 촌(寸)자만 남게 된다. 이렇게 하여 남은 글자를 짜 맞추어 보니 전할 전(傳)자가 된다.
丁目雙角三卜之人 → 道(도)
정목쌍각삼복지인
정목(丁目)에 쌍각(雙角) 즉 뿔 두 개를 없으면 머리 수(首)자가 되고 삼복지인(三卜之人)을 모으면 쉬엄쉬엄갈 착冠(⌒: 책받침)이 되니 머리 수(首)자와 짜 맞추면 길 도(道)자가 된다.

千口人間以着冠也 → 館(관)
천구인간이착관야
천구인(千口)은 설(舌)자 위에 인(人)자를 올리니 집 사(舍)자가 되고 그리고 사(舍)자의 옆으로 以(=目: 써 이에 갓 관(冠) 즉 갓(ˆ)을 쓰면 객사 관(館)자가 된다. 이와 같이 도하지(道下止)에 예언된 것을 파자(破字)로 풀이하니 전도관(傳道館)이라는 고유명사가 나온다.

다. 신천촌(信天村)-신양촌(信仰村)

一心合力 全家族이 弓乙村을 찾아보소
일심합력 전가족 궁을촌
牛聲之村見不牛로 人言一大尺八村을
우성지촌견불우 인언일대척팔촌
恨心하다 草路人生 弓乙村을 모르거든
한심 초로인생 궁을촌
呼天村을 先尋後에 呼母村을 更問하소 (出將論) 출장론
호천촌 신신후 호모촌 갱문
人言一大尺八村
인언일대척팔촌
인언(人言)은 믿을 신(信)자이다. 一大는 하늘 천(天)자다. 尺八村은 一尺 = 十寸이니 十寸에 八을 더하면 마을 촌(村)자가 된다. 이렇게 하여 얻은 글자가 신천촌(信天村)이다. 여기서 하늘 천(天)자는 우러를 양(仰)자와 같은 뜻이 있으므로 신앙촌(信仰村)과 같은 뜻이 된다.

또한 박태선(朴泰善)님은 하도낙서(河圖洛書)의 육도삼략(六韜三略) 중 방위(方位)로는 동방(東方)을 맡은 목운(木運)이요, 계절(季節)로는 봄(春)이다. 또 격암유록(格菴遺錄) 가사총론(歌辭總論)에 東方甲乙三八木(동방갑을삼팔목) 靑帝將軍靑龍之神(청제장군청룡지신)이라 했으니 이 분의 색깔은 청색(靑色)이다.

승리제단의 조희성님



류의 구세주요 정도령이요 생미륵불이다.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죽음의 영(靈)임을 선포하여 이 주체의식만 없애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생(永生)의 대도(大道)를 활짝 열어 놓으셨다. 격암유록에는 그 분의 성함과 승리제단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

가. 조희성님의 합자(衙字)

曹氏姓 : 人生秋收糟米端風驅飛
조씨성 인생추수조미단풍구비
糟飄風之人 弓乙十勝 - 賽 41 章
조표풍지인 궁을십승 새 41 장
인생을 추수하러 오시는 구세주는 지계미조(槽)에서 쌀 미(米)자를 바람 끝(端風)에 몰아(驅) 날려(飛)보내면 무리 조(曹 = 曹만 남게 되니 구세주는 조씨 성으로 오시는데 지계미조(槽)자에서 쌀 미(米)자를 회오리바람에 날려보낸 사람 조(曹)씨가 궁을십승(弓乙十勝)이다. 정확하게 조(曹)씨 성으로 오실 분임을 예언하고 있다.

金運(금운) 後降主(후강주) 曹熙星(조희성)님

1931년 음력 6월 28일 경기도 김포군 김포면 감정리 497번지 출생- 신미생(辛未生)

조희성님은 인생의 지식을 배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길한 별이 밝게 비치는 곳 즉 희성(熙星)이라는 존함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 곳인데 바로 이 분이 진짜 십승이다. 큰 대(大)자는 큰 인물을 말하는 것이요 흰 백(白)자는 의인을 말하는데, 곧 새벽별이다.

나. 승리제단(勝利祭壇)

十勝十勝何十勝
십승십승하십승
勝利臺上眞十勝 (初章)
승리대상진십승 (초장)
십승십승하는데 무엇이 십승인가? 승리대상 즉 승리제단 단상에 서서 강론을 하시는 분이 참 십승이다.
하도낙서(河圖洛書)의 육도삼략(六圖三略)에는 방위(方位)로는 서방(西方)을, 계절로는 가을(秋)을 맡은 금운(金運)이다.
西方庚辛四九金 白帝將軍白虎之神 (歌辭總論)
서방경신사구금 백제장군백호지신 (가사총론)
색깔로는 백색(白色)이다.* 다음호에 계속